

'86 산업위생담당 기술직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2.17~20일에 당협회는 산업위생 담당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마산 산업보건센터에서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산업보건사업이 시작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분야별 전문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던 점에서 처음으로 당협회 주관으로 실시하게 된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었으며 학문적 이론과 실험실습을 통해 기술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산교육으로 과거 경험만을 토대로 행해오던 산업위생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점에서 당협회는 산업보건 전문기관으로서 무한한 긍지를 느끼며 교육에 참여했던 일선 담당자들의 독려에 감사의 마음을 느낀다.

‘교육을 마치고’



마산산업보건센터
산업위생과
정 광 호

금번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4일 동안 당 협회를 중심으로 산업보건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의 산업위생과 직원이 모여 마산산업보건센터에서 연수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의 목적은 기술직 직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방법 및 시료분석방법의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해 측정기법의 향상과 측정기준의 통일성을 기하게 하여 효율적인 측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시키는데 있었으며,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보건협회가 주관하여 마산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된 데 대하여 마산센터에서 근

무하는 본인으로서 영광으로 생각되며 이번교육을 주관한 협회 본부에 감사하는 바이다.

이번 교육중 1,2일차(2일차는 오전)는 가톨릭의대 이광목교수님의 물리적, 화학적 유해인자의 측정기법에 대한 이론강의와 노동부 산업안전과 이경남 보건담당관님의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적해석(유해환경의 법적측면에서의 고찰) 강의가 이루어졌으며 2,3일차(2일차는 오후)는 당센터 산업위생과(실험실)에서 중금속분석에 대한 실습이 실시되었고 4일차는 당센터 가까이 위치한 가야그릴에서 허용한계 적용방법과, 측정결과 평가 및 대책 등에 대한 토론으로서 교육을 종료하였다. 그중 이론 및 토론시간에는 그동안 각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의문점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질문 및 토론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실습교육시는 그동안 다소 등한시 되었던 실험분석을 실습케 함으로서 화학적유해인자의 평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측면에서는 그 효과는 있었으나 실습장소가 협소하고 분석기자재 등이 충분하지 못해 참가교육자에게 불편을 끼친것 같다.

비록 3박4일의 짧은시간에 분석능력이나 측



정기법의 향상등을 도모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감은 있었으나 산업위생과 환경측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교육이 실시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다

는 점에서 그 의의는 큰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도 기술직직원들의 자질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러한 기회가 자주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 전문인력 양성교육으로 지속되어지길 』



한림대학
한강성심병원

황 병 문

산업위생 직무교육을 주최하여 주신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및 임원과 교육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한 위원 여러분에게 지면을 통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는 농경사회에서 고도의 산업사회로 옮겨감에 따라 직종도 다양화 되고 세분화되어 사회는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의 복잡다양함은 인간의 안녕과 행복을 누리하고자 하는 복지사회를 요구하게 되고 옛날과 같은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염원을 주장하는 측도 있다. 산업보건학에 있어서도 최후의 목표는 인간의 복지향상을 위한 고급 학문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것을 법적인 제도로 묶어서 규제한 것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였고 실제적 운영은 62년도에

제정된 근로안전 관리규정과 보건관리 규정으로 나누어 시행하였으나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산업재해의 다발과 각종직업병 발생은 근로기준법만으로는 규제가 불가능하여 1981년 12월 31일 산업안전 보건법을 제정 공포하여 새로운 법제도하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한 분야인 산업위생 (industrial bygine)도 과거와 같이 경험이나 도제 (徒弟)적 교육에서 벗어나 분야별로 완전한 전문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각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산업위생사들은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자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현장에서 폭로되는 각종 유해물질을 찾아내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고도의 학문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며 이것을 분석하여 널 실험실과 기구들이 필요하게 된다. 또 이러한 것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여도 활용하지 못한다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기 위하여 위생사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노동부 보건계장의 법적 측면에서의 고찰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향방을 주무부서 집행자로서 알려 주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한편 카톨릭 의대 이광욱 교수님의 작업환경측정법과 화학분석에 관한 강의는 교수님의 해박한 지식과 이 분야의 오랜 경험을 통하여 쉽게 강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었고, 현장에서나 실험실에서 적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중에 타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교재가 없었기 때문에 강의내용을 오래 기억해 두기가 어려웠을 것 같았던 점이 아쉬운 점이였으나 실습에 대한 교재 및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각 기관이 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작업환경측정은 고도의 정확성과 정밀성이 요구되고 많은 학문적 지식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 한해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산업보건전문기관의 모체인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계속하여 교육을 실시해 주어 산업보건 위생사들이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서 수준차가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선진 외국처럼 각 분야별 전문가가 배출되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개선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이론적인 강의와 실습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기업체의 분석 기기나 실험실습을 견학하여 견문을 넓힐 수 있게 하여 준다면 더욱 효과적인 교육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번 교육이 첫 회로서 어느 면에서는 부족한 점도 있으나 회수를 거듭하여 더욱 알차게 꾸려 명실공히 산업보건 위생사들의 전문교육 기관이 되어 주기를 바라며 끝까지 노고를 하여 주신 임직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

『토론식 교육으로 도움 커』

부산산업보건센터
신 통 원

마산에서 실시된 이번 직무교육은 협회설립이후 처음으로 닳을 올린 산업위생자를 위한 교육이었기에 산업위생분야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서 매우 반가웠다. 모든 교육은 교육자보다는 피교육자의 관심이 우선이라 생각되어 큰 기대로 실험자료준비와 증금속, 연, 각종 유해물질 등에 대한 문헌조사를 하여 교육에 임하였다.

이번 직무교육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토론식 교육이

었다.

작업환경관리에 참고가 되는 사항을 질문하고 각종 의문사항에 대해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어 결론을 내리고 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가슴에 와닿는 교육임을 느꼈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보건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변화에 대한 강의내용은 매우 유익했다고 생각된다.

한편,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실험과정에서의 표준곡선을 그리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팀을 이루어 팀별로 한 사업장을 모델로 하여 직접 포집하고 분석평가, 개선방법까지 설정해보는 과정으로 교육되었으면 하는 점이였다.

끝으로 직무교육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신 마산산업보건센터 관계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이 계속 되어 주길 바라며 산업보건향상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내실있는 교육으로 추진해 주기를 협회에 바란다.

『실험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실무에 도움 줘』



근로복지공사
중앙병원

안 경 혁

고도의 산업기술 발달과 성장의 저변에는 각종 새로운 화학물질 등에 의한 많은 유해인자가 작업장에 폭로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사실인 바 이들에 대한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사업장에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생산성향상을 도모하는데에는 고도의 산업위생학적측면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작업환경중의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증금속 등에 대한 공정시험법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이들의 분석방법 등에 대한 실무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중 금번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주관하여 보건진단기관에 종사하는 전국의 산업위생 기술직 직무교육이 개최되었던 것은 뜻깊은 일이었으며 더욱 실험실습 위주의 교육은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제한된 시간관계상 더 많은 유해인자들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며 이는 앞으로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연구하고 기술을 향상하여 더욱 양질의 보건진단을 실시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또한 금번 교육의 기회를 통하여 십수년간을 같은 길에 종사하면서도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제현들과의 만남에서 우의를 더욱 돈독

히 하였다는 점이 더욱 돋보이는 일이었으며 끝으로 이번 교육을 주관하여 준 협회와 이광묵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직무 수행상의 정보교환과 새로운 지식교류의 場으로 지속되길 』

부산 백병원
이 명 철

귀 협회에서 주관한 이번 교육에 참가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먼저 이 교육이 처음으로 실시되어 다소 미흡하였던 점이 없지 않으나 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분들과 한자리에서 만나 여러가지로 많은 배움과 보탬이 되었다고 본다.

서로간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급변과 같은 교육을 통해 실무상의 어려운 점과 정보교환, 그리고 새로운 지식의 교류를 갖는 것은 산업보건의 발전을 위해서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와같은 교육이 계속 실시된다면 각 기관마다의 일반적인 견해보다는 새로운 Method나 여러가지 분석방법 등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토의나 교육으로 실시되었으면 한다.

또한 일년간의 보건진단을 기초로 하여 측정하고 분석한 결과 등에 대해서도 고찰이 있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 주는 알찬 교육계획으로 많은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

『 산업보건 종사자로서 긍지와 유대감 갖게 돼 』

대전산업보건센터
김 재 응

웬지 교육을 받는다는 약간의 저항감을 갖고 마산행 열차에 올랐던 마음이 마산역에 도착하여 집표표를 나서는 순간 싱그러운 바다내음에 말끔히 씻

겨져 버리고 새로운 의욕을 느끼면서 직무교육에 임하게 되었다.

그동안 산업보건 분야의 일선에서 뛰어오면서 이 분야의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이 극히 적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다.

노동부의 정책방향과 산업보건분야의 현황설명을 비롯하여 가톨릭의대 이 교수님의 이론교육과 현장경험담을 통해 비로서 산업위생분야의 새로운 면을 대하는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지금껏 현장에서 일해 오면서 실무자로서 자질향상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해 오지 못하였던 점을 일깨워 주는 기회였고 그리고 그룹별로 실험을 실시하고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동안 동료애를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더욱 보람이 있었다. 특히 타기관의 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서로의 대화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보건 종사자로서 긍지와 친밀감을 가지고 산업위생분야의 발전을 위해 함께 기여할 것과 차후 이런 교육이 지속되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지기를 교육을 마치면서 모두가 느꼈던 것 같다.

1년한번 건강진단 1년내내 건강생활